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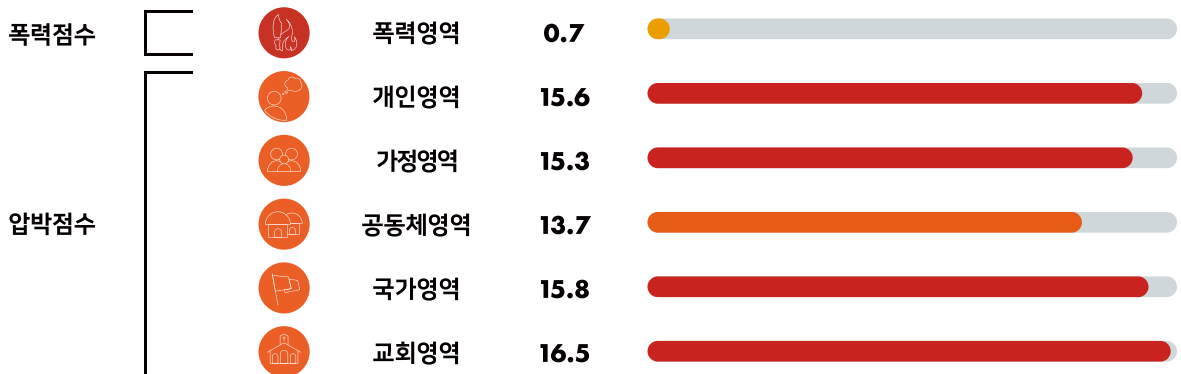
## 몰디브 (MALDIVES)

기독교 박해지수  
**16**위



©Pexels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몰디브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수도 말레에서는 그 밀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곳 사람들은 밀접하고 동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구성원의 일탈을 자연스럽게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감시에는 개인의 종교 선택 역시 포함된다. 몰디브 국민이라는 것은 곧 이슬람교도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무슬림 지도자나 당국에 신고되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몰디브는 일반 국민들의 보수적인 이슬람 성향 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지에서 전투를 경험한 일부 과격화된 인물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도 함께 겪고 있다. 몰디브의 무장 범죄 조직은 지하디스트의 주요 모집 대상이 되었고, 과격화된 갱단들은 이슬람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팬데믹 이후 몰디브의 주요 수입원으로 회복된 관광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와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기독교인들 또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어,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말리 (MALI)

##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  
인구 : 518,000 명  
기독교인 수 : 수백 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수백	-

오픈도어 추정치

몰디브의 정치는 항상 종교적인 함의를 동반하며, 국가 지도자들은 몰디브가 100% 순수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치가 흔히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인 만큼, 내분이나 연합 변화, 돌발적인 정치 행보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이는 2024년 세계 감시 목록(WWL) 보고 기간에도 드러났는데, 당시 국회의장이자 전 대통령이었던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가 과거의 정적들과 손잡고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을 축출하려 한 사례가 그 예다.

2023년 9월, 몰디브 진보당의 모하메드 무이주(Dr. Mohamed Muizzu)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몰디브 내 인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India Out" 캠페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선출되었으며,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지만, 인도의 지리적 경제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용적인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무이주 정부는 이슬람

통합을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몰디브는 (관광 리조트로 사용되는 섬들을 제외하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는 점점 더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4월 수도 말레에서 유명 블로거 야민 라시드(Yameen Rasheed)가 살해된 사건(《뉴욕타임스》, 2017년 4월 23일)이나, 2019년 11월 비정부기구 '몰디브 민주주의 네트워크(Maldives Democracy Network)'가 폐쇄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수호하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종교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왔다. 성직자나 소셜 미디어 활동가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라디니(laadheenee, 비신앙인)'라고 낙인찍고 폭력을 선동할 때에도,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실패했다"(2022년 4월 24일 보고서).

2020년 2월 말레에서 외국인 3명이 흉기에 찔린 사건과, 2019년 12월 마두브바리 섬에서 급진 이슬람 단체를 겨냥한 경찰의 급습은 몰디브가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

지 기독교인들은 조용히 지내며 급진 무슬림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일은 없었으나, 토착 기독교 소수자들은 외부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몰디브 토착 기독교인들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

몰디브의 법적 체계는 여전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제한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샤리아법의 영향 때문이다. 몰디브의 무슬림 여성은 이슬람 외 종교를 믿는 남성과 결혼할 수 없는 반면, 무슬림 남성은 타종교 여성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하는 데 큰 제약이 되는데, 법적으로 여전히 무슬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몰디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0건 중 9건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이혼율은 주로 남편들의 직업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해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장기간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신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교류할 공간이 부족해 고립감과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박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섬들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외국인 기독교인 공동체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외국인 거주자들은 주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이들 공동체는 결혼식과 같은 눈에 띄는 모임까지 포함해 면밀히 감시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몰디브 현지인이나 개종한 토착민과 접촉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세계 감시 목록(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장 심각한 박해를 겪는다. 공식적으로는 이들이 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슬람을 떠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세계 감시 목록(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 억압

몰디브 정부는 스스로를 이슬람 수호자로 여기고 있다. 공식적으로 몰디브인 기독교인이라 존재하지 않으며 이슬람 사무부와 국방부의 정책 또한 배교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독재적 편집증

이슬람적 억압은 독재적 편집증과 결합되어 있다. 정치 정당들은 자신들이 이슬람을 가장 잘 수호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 조직적 부패와 범죄

정부 전반에 걸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공직자들은 뇌물과 청탁, 협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정부 인사들이 폭력 조직을 이용해 보다 세속적인 성향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위협하고, 이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신체적 공격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지역 전문가에 따르면, “무장 범죄 조직은 지하디스트들의 주요 모집 대상이며, 급진화된 갱단은 이슬람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이슬람에 대한 극도로 엄격한 해석이 지배적인 몰디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성과 여성 모두가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성이나 소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 다시 이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써 강제 결혼, 언어적 학대, 위협, 기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섬 지역 사회의 강한 상호 감시 문화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관대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학대, 강간, 성희롱은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들:

- 강제적인 종교 복장 착용
- 강제 결혼
- 폭력-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몰디브 남성이 비밀리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 협박 또는 정부에 의한 구속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여건이 된다면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기를 선택한다. 만약 수감될 경우, 그 가족 전체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며 자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들:

- 폭력-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6	78
2024	18	78
2023	15	77
2022	16	77
2021	15	77

2025년 월드 와치 리스트(WWL)에서 몰디브의 전체 점수는 이전 보고 기간과 동일한 78점을 기록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 수준은 여전히 극도로 높았으며, 폭력 지표는 1점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종자들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며,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독교인들 또한 체포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10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4년 4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에는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음.

### 개인 영역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성경이나 기타 기독교 관련 자료를 숨긴 채 생활한다.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투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몰디브의 자국어인 디베히어(Dhivehi)로 된 기독교 자료는 현지인 전도 행위로 의심 받을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실제로 2024년 3월, 디베히어로 된 성경 소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관광객 두 명이 열흘간 구금되기도 했다. 당국과 지역사회는 반이슬람적으로 인식되는 상징물이나 표현을 철저히 제거한다. 외국인 기독교인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슬람 외의 신앙을 드러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가택구금, 5,000~20,000루피아 (\$325~\$1300 USD)의 벌금 그리고 추방될 수 있다.

### 가족 영역

세례식이나 기독교식 장례는 반드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몰디브 헌법 제36조 (c)항은 “교육은 이슬람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 부모의 자녀들은 이슬람 교리를 강제로 배워야 한다. 외국인 기독교인의 자녀는 이슬람 수업에서 면제되지만, 학교 생활 전반에 이슬람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신앙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외국인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 공동체 영역

높은 인구밀도,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 그리고 이슬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특히 수도 말레에서는 사회적 압박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된 검은 부르카 착용이다.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들이 강제 추방되거나 폭력을 당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또 다른 강제 이슬람화의 사례로는, 개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강요받는 점이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되거나 공개

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괴롭힘, 경제적 기회 상실, 심할 경우 폭력까지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순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국가 영역

몰디브 헌법은 자국을 “100% 무슬림 국가”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규정은 이슬람법에 기반하고 있다. 한 조항에서는 “이슬람 외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택구금부터 최대 5년형의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부분 추방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시행중인 “명예훼손법”에는 반이슬람적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교회 영역

법률상 비이슬람 종교를 위한 예배장소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몰디브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비무슬림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개 집회를 개최하거나, 몰디브인을 해당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기독교 관련 자료의 반입은 불법이며, 적발 시 구금 및 수감될 수 있다. 경찰과 세관은 기독교 관련 자료나 서신이 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슬람에 반하는 가치나 생활방식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압수해왔다.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양의 기독교 서적만이 허용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몰디브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말리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므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개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며, 샤리아 법 위반에 따른 국가 복지 혜택 상실 등의 처벌을 받는다 (ICCPR 제 18조 및 제 26조)
- 몰디브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비무슬림은 (특히 몰디브 국민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ICCPR 제 18조 및 제 19조)
- 몰디브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비이슬람 종교 의식은 금지되어 있다 (ICCPR 제 18조 및 제 21조)
-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비공개 예배 모임도 또한 당국에 의해 엄격히 감시 및 통제되고 있다 (ICCPR 제 17조)
- 기독교 여성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된다 (ICCPR 제 18조 및 CEDAW 제 2조)

## 몰디브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몰디브에는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종교 소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야 하며, 기독교, 힌두교, 불교, 무신론 등 이슬람 외의 종교나 철학에 대한 지지를 드러낼 경우, 기독교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는다. 이 같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은 투옥이나 심지어 사망의 위협 대신 자발적인 망명을 선택한다.

이슬람 신앙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 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이슬람에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된 인물들에 대한 온라인상 살해 위협과 공격에 대해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위협에는 이슬람을 비판한 자에 대해 샤리아 형벌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이슬람을 비판한 인물들을 '서구의 대리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2월에는 한 공직자가 무함마드 예언자를 조롱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확산된 이후, 다수의 인물들이 해당 공직자를 겨냥한 협박성 메시지를 잇달아 게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오픈도어의 몰디브 사역

오픈도어는 몰디브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사역을 촉구하고 있다.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